SUNG KYUN 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보 도 자 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설준영 (02-760-0788, 010-5091-0400)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 -

❑ 내용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4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이라는 대 주제 아래 2014년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연속적인 학술 대회를 진행**한다. 학술 대회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고, 근대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려는데 있다.

전통 학문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틀에서 연구되었는데, 사상 문화는 경학의 영역에 해당되었다. 근대 학문은 과학의 독립 이후, 분과 학문 체제로 전문화의 길을 걸었다. 현대에 이르러 다시금 근대의 분과 학문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야 간의 '통섭'과 '융복합' 그리고 '간학문'과 '초학문' 등의 새로운 경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전통학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대 학문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알아야만 동아시아인의 관점에서 근대 학문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동아시아 학문 전통에서 '통섭'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연구소는 형식적 논의를 극복하고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2014년 학술 대회 주제를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로 잡고 총 3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학문을 '수입학문'으로 규정하고, 연구자를 '수입상'으로 비유하는 말이 있다. 수많은 분과학문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에서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수입학문'과 '수입상'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학문 전통에서 끊임없이 탐구해온 학문조차 '수입학문'과 '수입상'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적인 학문, 근대의 학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교체되어왔는지 살피고 그 결과 현대 학문의 방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번의 연속적인 학술대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5월 31일 (토) 13:30~17:4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 별첨

1. 2014년 춘계학술회의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첨부 1 **2014년 춘계학술회의 일정표**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40 ----------**사회**: **모영환**(**성균관대**)

개회사: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 **기조발제**----------

13:40~14:00 —**발표** : **신정근**

▣ **주제발표**----------

14:00~14:30 ○**한국 근대 학술이념의 성층**(**成層**)

—**발표** : **이행훈**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14:30~15:00 ○**근대 '格物致知學'의 사상적 파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발표** : **박정심** (**부산대학교 철학과**)

15:00~15:30 ○**중국 근대 이행기 '철학' 담론의 '정치학'**

: **천하 – 국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발표** : **조경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사업단**)

15:30~16:00 ○'**학술**'**이란 무엇인가**?

: **니시 아마네**(**西周**)**의 「지설**(**知說**)」**을 중심으로**

—**발표** : **임태홍**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16:00~16:15 **휴 식**(Coffee Break)

▣ **종합토론** 16:15~17:40----------**좌장**: **신정근**

▣ **폐 회 식** 17:40

▣ **만 찬** 18:00

첨부 2 **발표논문 요약문**

【 발표1 】

한국 근대 학술 이념의 성층(成層)(안)

이행훈(한림대 기초교육대학)

• 목차 : 1. 서론 / 2. 학술 용어의 동아시아적 유통 / 3. '道'에서 '術'로, 형해화한 과거 / 4. 전통의 발명과 국가주의의 절합 / 5. 결론

• 발표 개요

2. 학술 용어의 동아시아적 유통

한국 현대 인문학의 뿌리는 20세기 초반에 뿌려진 씨앗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정에 인문학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다. 한국 근대 인문학은 전통적인 지식 체계를 걷어낸 자리에 세워졌지만,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개념 수용에 미친 영향도 크다. 동서가 대립하는 불완전한 토양에서 태생한 한국 근대 인문학의 뿌리를 탐색하는 작업은 인문학 내부의 길항을 해소하고 한국 근대 의미론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정한 시대에 사상, 지식, 제도, 일상의 영역에서 부각된 개념에 대한 탐색은 역사 이해의 중요한 방법이다. 동아시아 근대전환기에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념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노정하였다. '번역된 근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박래한 다양한 학술 용어는 일차로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는 삼중의 번역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3. '道'에서 '術'로, 형해화한 과거

근대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은 지나간 경험의 층위를 밀고 올라와 신시대를 갈망하는 기대지평을 담고 있다. 동서의 충돌과 교류는 동아시아의 지적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고, 전통적 지식 체계에 전이와 변용을 가져왔다. 개화와 진보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東道와 西器, 新學과 舊學 논쟁을 거치면서 전통 학문 체계는 비판과 쇄신, 부정과 폐기의 대상이 되어 갔다. 인간 본성의 자각과 도덕 실천의 理想은 문명개화와 근대 국가 설립의 제한적 수단으로만 논의될 뿐 더 이상 학문의 본령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했다. 서구 근대의 광휘는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규준했던 학문의 내용과 방법은 물론 목적까지 변화시켰던 것이다.

4. 전통의 발명과 국가주의의 절합

시대적 전환기에 고양된 위기의식은 주체와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당시 '조선'은 다양한 의미를 포섭하면서 과거의 경험지층과 기대지평을 동시에 견인하는 일종의 정신현상이었다. 현실에서 재현되지 못한 네이션과 전통으로 모색된 문화적 고유성을 둘러싸고 '조선'의 의미망은 더욱 확장되었다.

동아시아의 근대 학술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 궤를 같이 하며 근대 학제 내외부에서 공고화되었다. 전통으로 발명된 조선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학 형성의 동인 가운데는 서양과 동양, 문명과 야만, 전통과 반전통, 제국과 식민 등 대타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근대 전환은 문명개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인 층차도 존재한다. 세계체제 편입과 맞물려 부상한 국가주의는 동아시아 근대 학술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선학 형성을 가로지른 개념과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 유행한 담론 분석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 발표2 】

근대 '格物致知學'의 사상적 파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박정심(부산대학교 철학과)

1. 서론
2. 격물치지학의 수용과 근대 문명론
 1) 보편문명 간의 충돌적 만남
 2) 격물치지학과 문명의 상관성
 3) 신구학론: 邪學에서 新學으로, 正學에서 舊學으로
3. 격물치지학의 효용성과 근대적 인간
 1) 근대적 실학과 격물군자
 2)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 인종주의와 사회다윈주의
 3) 결핍된 타자로서의 자기의식: 성인->문명부재의 야만, 열등인종과 조센징, 효용적 노동적 체육적 국민담론
4. 근대 격물치지에 대한 되물음: 이분법적 사유에 대한 비판
 1) 성리학의 격물치지설의 해체
 2) 격물치지학과 '진보': 하나의 이데올로기(유럽중심주의와 과학주의)
 3) 문명의 문명다움과 誠(무성무물): 문명다움에 대한 하나의 시선으로서 성
5. 결론: 유럽중심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효율적 자본화된 인간에 대한 유학적 성찰 '참됨'

서세동점이란 용어가 표상하듯이, 한국근대는 서구 근대문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하지만 서구적 근대를 모방 혹은 번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국 근대를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비서구의 근대란 서구적 근대를 유일한 '근대'로 전제한 근대화로 규정짓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식민주의를 재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과 같은 이성의 역사는 물론 거부해야할 기독교적 권위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자기부정의 왜곡된 역사를 경험하였다. 다른 역사 경험은 다른 철학적 사유를 낳는다. 한국 근대는 서구적 근대를 모방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 근대 이해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문화적 텍스트들을 보편성으로 가장된 서구적인 문맥과 인식틀을 준거로 삼아 해독하려는 시선이다. 결핍된 타자로서의 자기인식과 비주체적 세계인식을 넘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신의 문화적 텍스트를 그것이 만들어지고 형상화되어온 문화적 문법으로서의 사상적·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인식론적 전환이다. 서구적 근대의 영향이 막강했으며, 그래서 번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지만, 근대적 맥락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사상체계와 실천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근대로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근대를 단순히 모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를 이해하는데도 의미가 없다.

서구 근대문명과 유학적 사유구조는 한국 근대 사상사적 지형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리학의 핵심이론이었던 격물치지론이 근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성리학적 개념을 차용한 신학 수용기에 '격물치지학'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리학이 어떻게 해체되며 동시에 서구자연과학 수용이 근대적 자연인식 및 인간 이해에 미친 영향을 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 근대를 전근대와 근대 야만과 문명 서구와 비서구 제국과 식민 등 이분법적인 체계에 분속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구조가 넓은 의미에서 유럽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임을 드러냄으로써, 서구적 근대만이 유일한 보편문명이라는 근대 이해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서구와 '다른' 근대에 대한 성찰이며, 현재적 관점에서 유학적 사유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 서구적 근대문명의 야만성을 넘어설 수 있는 '문명다움'을 모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근대는 자연과학적 진리와 효용이라는 합리성에 기반을 두었으며, 그것을 무기로 이른바 '과학시대'를 열었다. 서양과학은 물질과 그것의 운동으로 파악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실험과 관찰이란 방법론을 통해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세계에 적용하여 참된 효용을 창출하였다. 격물치지학 수용은 곧 그들의 앞선 문명성[civilization]을 새로운 전범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성리학의 해체를 의미하였다. 격물치지학을 둘러싼 사상적 격변은 서구근대를 진보적 전범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무였지만, 그것이 곧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의 도구였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를 되묻는 것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그 봉쇄된 지점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지행해야할 미래를 탐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근대적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우리가 지향해야할 문명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술이 사회의 인간의 물질적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거의 모든 전권을 내주고 스스로 기술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과학기술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시켜주었지만,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서구적 근대 문명성은 '문명다움'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길인지를 되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 길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철학적 물음은 '지금 여기'의 삶의 맥락에서 묻는 철학적 물음은 현재적 물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을 묻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적 근대성을 전범으로 삼거나, 전통철학의 초월적 보편성을 해석하는데 치중하였다. '無誠無物'은 과학기술이 삶을 도리어 황폐화시키는 기술만능주의시대에 문명다움 인간다움 기술다움을 성찰할 수 있는 도덕성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바른 몸-사람다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마주하고 선 자연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지평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몸-사람은 삶의 맥락 속에 있기에 삶의 의미를 문제삼아야하지 않을까? 바른 몸에 관한 구체적인 담론을 정립하는데 유학을 재해석을 하는 작업이 일정부분 유의미할 것이라고 본다. 몸을 단순히 기계라고 인식했던 근대 담론을 넘어설 대라야 비로소 삶의 맥락에서 바른 몸을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맥락에서의 바른 몸은 誠함[誠之]을 통해 時中을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니, '지금·여기'의 時中은 자본주의의 거친 파고를 넘어 참살이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발표3 】

중국 근대 이행기 '철학'담론의 '정치학'
: 천하-국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조경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 사업단)

레벤슨은 "중국의 '문명'은 중국이 현대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천하'에서 '국가'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100년 후인 지금은 국민국가에서 문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지식인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계급중국'에서 21세기 사회주의 '문명중국'의 재구축은 이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극복을 전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에서 중국철학 합법성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역전의 역전'을 맞아 100년 전의 문화적 '역전'을 의식하면서 진행되었다. 즉 사유방법이 다른 동서 철학 체계상에서 서양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사유를 다 설명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서양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언어체계와 논술방식으로서의 'philosophy'로 재구성한 '중국철학'의 개념으로 중국의 역사적 문맥과 정신적 토양에서 나온 전통사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었다. 이는 100년 전 근대 이행기 서양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전통사상을 재해석하여 국고정리를 시도했던 당시의 '근대 학술 기획'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점에 초점을 맞추면 장지동(張之洞)과 왕국유(王國維) 사이에 있었던 이데올로기(유학)와 가치의 대결, 양계초(梁啓超)와 왕국유 사이에 있었던 유교철학 논의는 철학 개념의 이해방식과 관련하여 다시금 들여다보아야 하는 곳임에 틀림없다.

근대이행기와 현재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그 때는 국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느 때보다도 위기적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이와 달리 담론의 베이스에 부강한 국가의 존재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지식인 담론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는 세심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학계에서 일고 있는 서양을 극복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지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근대이행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제의식은 심각하게 왜곡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른바 학술 연구에서 서양중심주의가 지적되는 만큼 그 정도 이상으로 중국중심주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학을 둘러싸고 있는 학계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이 글은 청말민국초 위기상황에서 크게는 권력과 지성이 분열되고 새롭게 학문의 장이 형성, 분화하는 속에서 지식인들이 철학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하려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한다.

첫째, 중국 근대 이행기 여러 학술 개념들은 기존의 과거제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근대적인 대학체제가 형성되는 속에서 변환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담론만이 아닌 새로운 제도의 편제와 함께 논의될 때 그 실체가 규명될 수 있다. 즉 전통적 학술 개념과 서구에서 들어온 학술 개념이 신교육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호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변모했다.

둘째, 중국은 일본과 달리 전통사상의 강인한 기축(基軸)이 존재했다. 5.4신문화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신문화운동과 같은 서구적 지식의 전통과의 강열한 대결이 있은 후에도 단속적으로 전통의 반격이 있었다. 이 정도로 중국의 경우 전통과 근대는 격렬하게 대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가 일도양단식으로 나누어질 수 없었다.

셋째, 지금의 학술 논의에는 더더욱 순수 학술 이전의 문화패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만, 중국 근대국가로의 이행기에 철학이라는 개념이 중국에 들어와 논의될 때도, 중국의 지식인들이 문화패권의 문제를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점을 비판적으로 의식하여 정치와 학술의 긴장을 의도한다.

넷째, 세 번째 문제를 의식하여 제도변화와 담론의 전체 양상 속에서 철학 개념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차원을 따라가되 담론의 '정치학' 측면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브르디외의 지식장 개념을 허용되는 한에서 활용한다.

【 발표4 】

'학술'이란 무엇인가 :
니시 아마네(西周)의 「지설(知說)」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임태홍

'학술'이란 무엇일까? 많은 연구소들이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세미나나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또 국가에서는 연구자들의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학술'이란 '학문과 관계되는 기술이나 방법, 혹은 그 이론'을 말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학술'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일상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뜻하는 말로 그 의미를 새삼스럽게 깊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들과 너무 친숙해져버린 '학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100여년 전에 새롭게 태어난 용어로 일본 사람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가 서양의 'Science and Art'라는 단어를 동양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 일본어를 히라가나나 가다카나로 표기하지 않고, 한자로 '學術(가쿠쥬쯔)'라고 했기 때문에, 근대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대로 수입하여 오늘날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같이 쓰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이나 중국에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저작료나 번역료를 지급하는 일도 없이 수입해서 쓰게 되었지만, '가큐쥬쯔'는 사실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의 단어였다. 만약에 니시 아마네가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번역, 표기했다면,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그것을 다시 자국어로 번역해야하는 '정신적 고통'을 맛보았을 것이다.

니시 아마네는 명치시대 초기에 활약했던 계몽 사상가였다. 그가 만들어낸 용어는 '과학(科學)', '기술(技術)', 주관(主觀), 객관(客觀), 연역(演繹), 귀납(歸納)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번 발표는 1870년대에 발간된『명육잡지(明六雜誌)』에 실린 「지설(知說)」을 중심으로 '학술'이라는 단어가 잉태되어 탄생하기까지의 '다이내믹'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니시 아마네는『명육잡지』에 모두 13개 주제의 글을 투고했다. 「서양글자로 국어를 쓰는 것

에 대한 논의」, 「교문론(教門論)」, 「정실설(情實說)」, 「비밀설(秘密說)」, 「국민기풍론」, 「내지여행」, 「인생삼보설」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 「교문론」은 종교를 논한 것이고, 「인생삼보설」은 도덕을 논한 글이다.

「지설」은 1874년, 즉 '명육사(明六社)'가 결성된 다음해에 모두 5차례로 나누어 실었는데, '지식(知識)'에 대해서 논한 글이다. 「지설」은 또 '과학(科學)'이라는 번역어가 처음 사용된 글로도 유명하다.

「지설」에서 니시 아마네가 정의한 '학술'이란 다음과 같다.

1) 19세기에 나타난 서양의 '학술'은 새로운 것으로,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그동안에 존재하였던 '학술'과는 전혀 다르다.

2) '학술'이란 단어는 '학(學, science)'과 '술(術, art)'이 결합된 것으로, '학'은 진리를 아는 일이며, '술'은 그것을 현실세계에서 활용하는 일이다.

3) '학'과 '술'의 기본 취지가 다르지만, '과학(科學)'의 영역에서는 '학'과 '술'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의 경우, 분석적인 화학은 '학'이라고 해야 되지만, 종합적인 화학은 '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4) 학술 활동의 핵심은 진리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것을 '강구'(講究, 연구)라고 한다. 연구 방법에는 '시찰'(視察, 관찰), 경험, '시험'(試驗, 실험)이 있다. 실험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으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연구가 아니다.

5) '연구'를 할 때에는 '연역(演繹)'의 방법이나 '귀납(歸納)'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명(發明)'하는 것이 학술이다.

6) '학술이 발달하였다', '학술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학'이나 '술'이 깊이 있고 세밀하며, 매우 치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학'과 여러 '술'을 서로 엮어서 조직하고 모음으로써 '크게 이룸(大成)'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의는 니시 아마네가 정의한 '학술'의 의미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메이지 유신 직후 1870년대 일본사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신세계의 이야기였다.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문명을 이룩했으며, 강력한 국가를 갖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계몽사상'이기도 하였다.

에도시대의 학자들은, 오규 소라이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제외하고 중국과 조선의 전통시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교 경전에 매달려 '성인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자신의 도덕 수양의 지침으로 삼는 데 열중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현대 문명의 조류에 뒤처져 서양 사람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제로 한 서양 탐구의 한 결과가 '학술'이라는 번역어였으며, 그 '학술'의 정체를 밝혀 일본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집필한 글이 「지설」, 즉 니시 아마네의 '학술론'이었다.